

전주시, 국제슬로시티 확대 재인증

한옥마을 경관관리 등 높이 평가 5년간 유지

전주시 전역이 대도시권에서는 유일하게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고 느림의 미학이 살아있는 국제슬로시티로 확대 재인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연간 1000만명이 방문하는 전주한옥마을을 중심으로 국제슬로시티로서의 국제적인 위상 강화와 함께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를 넘어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맞았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31일 전주시의회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 한국슬로시티본부 손대현 이사장과 함께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가 5년마다 이뤄지는 슬로시티 재인증 평가에서 민·관이 함께 펼쳐온 전통문화 중심의 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만들기 방문객 수용태 개선, 슬로시티 홍보마케팅 등의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전주시 전역으로 권역이 확대돼 재인증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국제슬로시티연맹 규정에 따라 향후 5년간 슬로시티 인증도시이자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국제슬로시티 공동체로서 슬로시티 정책을 마련하고 실천하게 된다. 또 슬로시티 전주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도시 전주의 국제적 위상 확립과 도시 브랜드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달 31일 전주시의회 박혜숙 문화경제위원장, 한국슬로시티본부 손대현 이사장, 전주한옥마을 서포터즈 한광수 운영위원장과 함께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국제슬로시티연맹(회장 스테파노 피사니)은 전주시 슬로시티 재인증 신청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문에서 "연맹은 전주시의 지난 5년간의 성과와 실적을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돼 2016년 4월 27일부로 전주시가 슬로시티 회원도시로 재인증 되었음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옥마을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전주시가 민선 6기 들어 사람·생태·문화의 3대 가치를 바탕으로 한옥마을을 수용태 개선과 금연거리 지정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온 점이 이번 재인증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슬로시티본부도 재인증 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전주시가 △한옥마을 내 경관관리와 정비 노력 △한옥마을 인근 남부시장 활성화와 골목 상권의 중요성 △한지와 소리 등 전주 고유의 전통문화와 무형문화 계승 노력 △지역민과 방문객들의 슬로시티 인식 확산을 위한 실천운동 △슬로시티 지정 이후 전주 브랜드 가치 상승 등을 높이 평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승수 시장은 손대현 한국슬로시티본부 이사장과

한광수 국제슬로시티 전주한옥마을 서포터즈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슬로시티 재인증에 따른 향후 발전방안 및 상호협력에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승수 시장은 "전 세계 유일의 도심형 슬로시티인 전주한옥마을은 지난 5년간 전주만의 한옥마을이 아닌 대한민국의 한옥마을이 됐다"며 "국제슬로시티 확대 재인증을 계기로 전주가 좋은 도시를 넘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위대한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생태동물원 곰사 신축 추진

시, 다올마당서 집중 논의

전주시가 호랑이·사자사에 이어 감옥 형태의 곰사도 본래서식환경에 가까운 환경으로 새롭게 조성한다.

곰사 신축이 완료되면 민선6기 전주시 핵심사업 중 하나로 추진 중인 생태동물원 조성사업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31일 전주 생태동물원 조성을 위한 관련 전문가와 시민, 전주 동물원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태동물원 다올마당'을 갖고 곰사 신축 방향 등을 집중 논의했다.

지난 1983년 건축된 곰사는 전주동물원에서도 최악의 환경으로 꼽히는 열악한 환경으로, 반달가슴곰 2마리와

애조볼품 여리가 살고 있다.

이에 시는 곰사 신축을 위한 실시용역 설계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총 21억원을 투입해 기존 곰사에 비해 총면적이 10배 이상 확장된 곰사를 신축할 예정이다. 또, 곰들의 생태특성에 맞는 물웅덩이와 통나무 등 다양한 행동풍부화 시설 구축으로 획기적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시는 곰사 신축이 완료되면 낙후된 시설과 동물복지가 고려되지 않은 서식환경 등으로 인해 그간 전국에서 가장 슬픈 동물원으로 불렸던 전주동물원은 동물들의 본래 서식지 환경에 가장 가깝고 동물복지 환경을 갖춘 행복한 동물원으로 탈바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재 기자

'사학비리' 서남대 설립자에 징역 9년·벌금 90억원 확정

서남대학교 설립자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에 따르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홍하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90억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07년 1월~2012년 8월까지 공사대금을 가장해 남인 서남대와 전 남 광양, 경기 등지에 있는 대학 4곳의 교비 888억 원 및 자신이 설립해 운영한 건설사 자금 105억 원 등 총 1,003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또 자신이 설립한 대학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2억4,000여만 원을 사학연금에 납부하지 않고 직원 급여 등으로 쓴 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318억원 상당의 매출과 98억원 상당의 매입을 위조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1심 법원은 이씨의 혐의 가운데 횡령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혐의, 교육부 사립대학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횡령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광양대학교와 한려대학교 교직원 사학연금과 사학대여금 원천징수금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범죄에 대한 세 사건을 병합 심리해 이씨에게 징역 9년형과 벌금 90억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1,003억원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고민형 기자

또 1심에서 제외한 교비 94억원도 추가 횡령액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학교를 위해 돈을 사용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런데도 2심 재판부는 "이씨는 교비 등을 개인 재산으로 생각해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의 재정이 바닥나면 이를 동원에 메꾸기도 했다"며 "횡령 혐의가 드러난 시점에도 처벌받지 않자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각 대학교에 임직원 등록금 등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해당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어떠한 용도에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특별한 용도가 없더라도 우선 교비회계에 임직원 자금을 허위의 노임 명목으로 지출하게 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이씨는 교비를 그때그때 자신이 지출해야 한다고 판단한 용도에 사용했으므로 교비가 인출될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씨의 횡령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교비의 회계상 용도는 엄격히 제한돼 있음에도 교비 등이 불투명한 용도로 사용됐고 이씨는 허위로 전산 출금 기록을 남겼다"며 "이씨의 행위로 인해 대학과 병원의 재정이 악화돼 불법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민형 기자

병원서 만난 女 유인 성폭행 5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31일 강간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1시께 군산시 자택에서 B(47·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같은 병원에 입원해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커피나 한 잔 하자"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이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인정되지 않아 원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박용주 기자

전주시, 노인복지기관에 기금 지원

전주시는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놀이마당 오감' 놀이공작소의 소소한 외출 등 4개 사업을 노인복지기금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인복지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4개 기관에는 각각 200~300만원씩 총 10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공모를 통해 전주시 관내 6개 노인복지관련 기관과 단체가 참여해 사업의 적정성, 수행능력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해 기금 지원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노인복지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들은 노인복지기금을 지원받아 6월부터 올 연말까지 노인복지증진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전주시는 지난 1999년 5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발생하는 이자로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사업, 충효예절 등의 사업을 지원하

고 있다. /김영재 기자

인터넷 중고 핸드폰 판매 사기 30대 검거

덕진경찰서는 31일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거짓으로 스마트폰 판매 광고 글을 올려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조모(3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3월10일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중고품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 공기계 싸게 팝니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 A(30·여)씨에게 14만원을 입금 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57만원을 받아 챙기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 없이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던 조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 기자

운전 중 벌에 쓰여 전신주 받아

운전 중 차량 창문으로 벌이 들어와 쓰여 전신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4시경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에서 변산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덩크차량에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온 벌에 운전자가 쓰이면서 차선을 이탈 전신주 3개를 연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전신주 3기는 완전히 파손되어 소방·경찰·한전의 신속한 안전조치로 운전자는 다행히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다.

부안소방서 김원술 서장은 "산행 등 야외 활동 시 화려한 색의 옷과 자극적 향수는 피하고, 도시 외곽지역 등 도로변을 따라 수목이 우거진 차로 운행 시 가급적 창문개방을 자제하고 줄음운전 예방을 위한 차내 환기는 안전한 지역 정차 후이나 실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or.kr *전자우편 : jvs@hanmail.net